

2017년도

참담치(홍합) 치패 방류 완료보고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http://fish.incheon.go.kr>

2017 참담치(홍합) 치패 방류 원료 보고

이상기후 현상 및 자원 남획 등에 의하여 점점 감소되어 가고 있는 참담치 자원량 회복을 위해 우리 연구소에서 자체 생산한 우량 치패를 방류함으로써 자원량 증대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I 방류 개요

- 방류 일정 : 2017. 7. 19(수)
- 방류 지역 : 중구 소무의도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해역
- 방류 수량 : 17만미
- 방류 품종 : 참담치(홍합) 치패
- 종패 크기 : 각장 1.5cm 내외
- 방류 방법 : 어선으로 방류지역까지 이동하여 스킨스쿠버 다이빙 방류

II 참석자

- 연구소 : 소장, 팀장 및 직원
- 구 청 : 구청 해양수산담당장 박병호, 정주연
- 수 협 : 인천수협 지도상무, 지도팀장 및 직원
- 어촌계 : 소무의어촌계장, 큰무리어촌계장, 광명어촌계장 및 계원

III

방류 수량 검수

○ 표본 측정 결과

- 평균 각장 1.5cm 내외

○ 방류 수량

- 총수량 170,000마리

- 수량 검수

계량 회수(회)	총무게(g)	개체당 평균 무게(g)	방류수량(미)
6	44,030	0.259	170,000

※ 방류 10일전 바위돌에 부착 작업

IV

방류 해역도





수조내 참담치 치패



바위돌에 부착시킨 참담치 치패



방류지역 도착



바위돌 부착 치패 방류 준비작업



방류정점에 수온로거 설치



참담치 치패 방류 준비



방류지역 1(자연석 투하 지점)



방류지역 2(자연석 지점)



참담치 치패 방류 작업(1)



참담치 치패 방류 작업(2)



참담치 치패 방류 작업(3)



참담치 치패 방류 작업(4)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남양주 33.2°C | 인천관 | 서울관 | 보도자료 | 구독신청

경기일보

☰ 정치 경제 사회 인천 지역종합 문화 스포츠 연예 포토

☰ > 뉴스 > 인천

인천시, 토종 수산종자 육성 본격 시동

백승재 기자 deanbek@kyeonggi.com | 노승훈인 2017년 07월 19일 19:08 | 발행일 2017년 07월 20일 목요일 | 제0면



본문 + - 글 크기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는 19일 이상기후 현상 및 자원 남획 등으로 점차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어린 참담치 17만미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 중구 소무의도 앞 연안바다목장 사업 패류초 설치 해역에서 방류된 참담치는 지난 4월 우량 어미로부터 어린 치패를 산출시켜 연구소 조개류 생산동 실내에서 사육한 각장 1.5cm 이상 크기의 어린 참담치다.

참담치는 홍합과에 속하는 패류로 연안 암초에 서식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인이 즐겨 먹는 기호식품이다.

연구소는 앞으로 어촌계 어선을 동원해 해당 해역에서 스킨스쿠버 잠수 방식으로 넓은 기질에 치패를 부착해 생존율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사를 통해 어린 참담치의 방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참담치 자원량을 회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참담치 우량 종자 생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자원이 감소되고 있는 해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방류해 자원 생산량과 어업인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HOME > 전국

인천시,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 참담치 17만미 방류

신윤철 기자 승인 2017.07.19 14:01 댓글 0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이상기후 현상 및 자원 남획 등으로 점차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참담치 자원량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소는 19일 인천 중구 소무의도 앞 연안바다목장 사업 패류초 설치 해역에 시험적으로 어린 참담치 약 17만미를 방류했다고 전했다.

해당 수산 종자는 지난 4월 우량 어미로부터 어린 치패를 산출시켜 동 연구소 조개류 생산동 실내에서 사육한 각장 1.5cm 이상 크기의 어린 참담치다.

한편 이번 방류 방법으로는 관내 어촌계 어선을 동원하여 해당 해역에서 스킨스쿠버 잠수 방식으로 넓은 기질에 치패를 부착, 생존율 향상 및 계속적 모니터링과 효과조사를 통하여 어린 참담치의 방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참담치 우량 종자 생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원이 감소되고 있는 해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방류, 자원 생산량 및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윤철 기자 syc5568@daum.net

사회

인천시, 토종 수산종자 육성 나서..참담치 17만미 방류

문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17/07/19 [14:40]



- 5~18세, 키 크려면 우유보단 "이것"
- SNS후끈 "21억" 페라리녀 알고보니...알바생?!!

(브레이크뉴스인천 문광수 기자)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이상기후 현상 및 자원 남획 등으로 점차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참담치 자원량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소는 19일인천 중구 소무의도 앞 연안바다목장 사업 패류초 설치 해역에 시험적으로 어린 참담치 약 17만미를 방류했다.

해당 수산 종자는 지난 4월 우량 어미로부터 어린 치패를 산출시켜 동 연구소 조개류 생산동 실내에서 사육한 각각 1.5cm 이상 크기의 어린 참담치다.

이번 방류 방법으로는 관내 어촌계 어선을 동원해 해당 해역에서 스킨스쿠버 잠수 방식으로 넓은 기질에 치패를 부착, 생존을 향상 및 계속적 모니터링과 효과조사를 통해 어린 참담치의 방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참담치 우량 종자 생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원이 감소되고 있는 해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방류, 자원 생산량 및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Google에 의해 종료된 광고입니다.

[이 광고 그만 보기](#) [Google 광고](#)

출> 전국네트워크 > 인천

인천 수산자원연구소, 참돔치 자원량 회복에 총력

고윤정 기자 | yjgo@shinailbo.co.kr

2017.07.19 16:49:12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이상기후 현상 및 자원 남획 등으로 점차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참돔치 자원량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소는 19일 인천 중구 소무의도 앞 연안바다목장 사업 패류초 설치 해역에 시험적으로 어린 참돔치 약 17만미를 방류했다.

해당 수산 종자는 지난 4월 우항 어미로부터 어린 치패를 산출시켜 동 연구소 조개류 생산동 살내에서 사육한 각각 1.5cm 이상 크기의 어린 참돔치다.

한편 이번 방류 방법은 관내 어촌계 어선을 동원해 해당 해역에서 스킨스쿠버 잠수 방식으로 낚은 기질



를 부착, 생존률 향상 및 계속적 모니터링과 효과조사를 통해 어린 참돔치의 방류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참돔치 우량 종자 생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원이 감소되고 있는 해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방류, 자원 생산량 및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인천/고윤정 기자 yjgo@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OME > 전국 > 인천·경기

인천시, 토종 수산자원 회복 위해 치어 방류사업 나서

참담치 17만미 방류

김양훈 기자 승인 2017.07.19 10:38 댓글 0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수산자원연구소는 이상기후 현상 및 자원 남획 등으로 점차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참담치 자원량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소는 19일 인천 중구 소무의도 앞 연안바다목장 사업 패류초 설치 해역에 시험적으로 어린 참담치 약 17만미를 방류했다고 전했다.

해당 수산 종자는 지난 4월 우량 어미로부터 어린 치패를 산출시켜 동 연구소 조개류 생산동 실내에서 사육한 각각 1.5cm 이상 크기의 어린 참담치다.

한편 이번 방류 방법으로는 관내 어른계 어선을 동원하여 해당 해역에서 스킨스쿠버 잠수 방식으로 넓은 기질에 치패를 부착, 생존을 향상 및 계속적 모니터링과 효과조사를 통하여 어린 참담치의 방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참담치 우량 종자 생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원이 감소되고 있는 해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방류, 자원 생산량 및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훈 기자 dpffhgla111@hanmail.net

• 김양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한국남자, 좋아하는 여자 84% 비결은??
 '꽃은' 어찌 볼줄 '알고보니...' '출격'!!
 고개숙인들 '그런 1위' 함원에 해답?
 '죽, 머리, 어찌' 볼줄 '이것' 때문..기 '출격'
 IT급출력 주술? 의외의 '복합' 인기수익220%

'꽃은' 어찌 볼줄, 원린 알고보니...' '출격'!!
 고개숙인 남심 '잡어줄' '부대' 좋은 이것?
 '치마가 자주 함복으로만 좋아간다면?' '출격'
 남심 바꾸면 '1분'만에 효과 볼대
 OO대다들, 3달만에 80배 ↑...110억벌었다?

▶ 전국 > 인천

만화/운세/영화 최신소식

'개체수 급감' 홍합 살리자...인천시, 어린 홍합 방류

(인천=뉴스1) 문한기 기자 | 2017-07-19 12:22 송고

기사보기

네이버의견

좋아요 0개

공유하기

Tweet

인쇄



인천시청사 전경. © News1 DB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는 19일 이상기후, 불법조업 등으로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는 홍합 자원량을 회복하기 위해 중구 소무의도 앞 해역에 어린 홍합(참담치) 17만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수산연구원은 올해 4월 우랑 어미로부터 생산한 어린홍합을 1.5cm 이상 크기로 사육한 뒤 이날 방류했다.

이번 방류는 해당 해역에서 잠수 방식으로 낚은 기질에 어린 홍합을 부착하는 방법을 동원했다.

수산연구원은 계속적 모니터링과 효과조사를 통해 방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